

# 고려 숙종의 즉위에 대한 기억의 정당화 방식\*

김 보 광\*\*

머리말

1. 현종의 즉위는 정당한가?
2. 현종은 왕의 자질을 지녔는가?

3. 숙종 즉위는 필연적인가?
4. 숙종의 즉위를 둘러싼 기록과 기억의 문제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숙종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종 즉위의 부당성, 현종의 자질 부족, 숙종 즉위의 불가피성의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현종에 대한 세평, 원자라는 부분의 강조, 어려서 즉위하여 발생한 어머니 사숙태후의 청정 등을 이용해 현종의 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

\* 이 글은 2025년 6월 14일에 열린 한국사상사학회 학술대회 '찬탈과 반정의 사상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부교수

대표논저 : 2023, 「고려전기 기신의례(忌辰儀禮)의 정치적 논리와 왕권의 재현」, 『한국중세사연구』 75 ; 2023, 「고려후기 漢語都監 연혁의 재검토 - 對몽골 정책의 전환과 관련하여 -」, 『역사와 담론』 106 ; 2022, 「고려 인종의 즉위와 『御正殿·聽政』 사이 정치적 시차와 그 해소 과정」, 『韓國史學報』 89 ; 2019, 「고려 인종대 對여진(금) 관계 설정과 현실주의적 대응」, 『아시아문화연구』 51 등.

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헌종에게 묘호를 올리지 않고 회상이라는 시호만을 올려서 그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숙종 스스로를 고려의 14대 왕으로 자임하였다. 또 헌종에 대한 부정적 자질을 강조하여 태조 훈요에 나오는 '불초(不肖)'의 조건에 헌종이 해당함을 은연 중에 드러내었다. 또 몇 가지 상서로운 일화로 숙종 즉위의 필연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선종, 헌종대의 기록은 모두 숙종 또는 예종대에 편찬된 실록에 기초한 것으로, 그 방향은 숙종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미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관료층의 기억에서도 숙종대의 기록 방향이 공유되기도 하였다.

결국 숙종대 이후에 고려의 지배층은 순서의 조작, 과장 등의 방식을 통해 선종의 실재, 헌종의 부당함과 무능력, 숙종 즉위의 불가피함을 적절하게 설파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었다.

주제어 : 숙종, 선종, 헌종, 이자의의 난, 왕권, 정당화

## 머리말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자라서는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였다. 성격은 굳세고 과단성이 있었다. 5경(經)과 자서(子書) 및 사서(史書) 중에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문종이 그를 아껴서 일찍부터 말하기를, “나중에 왕실을 부흥시킬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라고 하였다. (문종) 19년(1065) 2월 계림후(雞林侯)로 책봉되었고, 31년(1077) 3월에 계림공(雞林公)으로 올랐다. 선종(宣宗) 3년(1086) 2월 수태보(守太保)를 더하였다. 9년(1092) 여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 서경(西京)으로 갈 때 자주색 구름이 막사 위를 두르니 천기(天氣)를 보는 자가 왕이 될 상서(祥瑞)라고 하였다. 헌종(獻宗)이 즉위하자 수태사(守太師) 겸 상서령(尙書令)이 되었고, 다음해(1095) 8월 중서령(中書令)이 되었다. 10월 기사일에 헌종이 제서(制書)를 내려 왕위를 선양(禪讓)하니 왕이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경오일에 중광전(重光殿)에서 즉위하였다.<sup>1)</sup>

이것은 『고려사』에 수록되어 있는 숙종(肅宗)의 총서 중 일부이다. 총서이기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수록되어 있다. 제시된 글을 보면 개인 능력, 역량에 대한 부분과 즉위하게 된 배경 내지 징조가 기술되어 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부분에 그가 1095년 10월에 헌종으로부터 선위를 받아 즉위하였다고 적혀 있다.<sup>2)</sup>

숙종은, 만 37년이라는 장기간 재위하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문종(文宗)의 셋째 아들이다. 1083년 7월과 10월의 3개월 사이에 문종과 순종이 잇따라 사망하자 문종의 둘째 아들인 선종이 즉위하였다. 선종은 즉위 다음해인 1084년에 뒤에 헌종이 되는 아들 왕욱(王昱)을 낳았다. 선종은 1093년 3월에 홀연히 세상일에 초연한 시를 지어 신하들을 깜짝 놀

1) 『高麗史』 卷10, 世家10, 肅宗 1 總序.

2) 이 글에서는 묘호인 숙종과 봉작명인 계림공, 휘인 왕희이라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되도록 구분하여서 숙종은 즉위 이후의 상황에, 계림공이나 왕희는 즉위 이전의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고자 하였다. 시기에 관계없이 대표명으로는 숙종을 사용하였다.

라게 하였는데,<sup>3)</sup> 이 무렵부터 선종의 건강이 좋지 않아 선종의 후계를 놓고서 정치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한다. 그러다가 1094년 5월에 선종이 아들 왕욱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고, 11세의 왕욱이 즉위하였다.<sup>4)</sup> 그러다가 1095년 7월에 이자의가 왕위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한산후 윤을 옹립하려고 도모하다가 계림공에게 일이 발각되어 숙청당하였다.<sup>5)</sup> 이후 계림공이 사실상 집권하였고, 현종은 10월 7일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숙부인 계림공에게 '선위'의 뜻을 밝혔고 다음날에 계림공이 즉위하였다.<sup>6)</sup>

이렇게 어린 국왕의 짧은 재위 기간과 그 사이의 정변, 그리고 조카에서 숙부로 왕위가 이어지는 구도 등은 조선의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연상시켜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앞서 제시한 숙종 총서에는 숙종의 총명한 어린 시절부터 즉위하게 되는 과정이 담담하게 적혀 있어 커다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어린 현종을 대신해 조카를 옹립하려는 이자의와 그에 반대하는 계림공 왕희가 갈등을 빚다가 이자의가 난을 도모하자 계림공이 저지하고 마침내 즉위하여 숙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세세하게 보면 현종과 숙종 중 누가 즉위에 우선하는가 하는 왕위계승의 원칙 문제, 이자의의 난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여부, 현종의 선위를 놓고 말 그대로 선위인지 탈취인가 하는 평가 문제 등을 놓고 연구자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숙종의 즉위를 둘러싼 기록들에 숙종의 즉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음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sup>7)</sup>

3)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9年(1093) 3月.

4) 『高麗史節要』 卷6, 宣宗 11年(1094) 5月 壬寅(2).

5) 『高麗史節要』 卷6, 獻宗 元年(1095) 10月 己巳(7); 『高麗史』 卷127, 列傳40, 叛逆1 李資義.

6) 『高麗史節要』 卷6, 獻宗 元年(1095) 10月 己巳(7).

7) 숙종의 즉위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많은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숙종의 즉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종 즉위의 부당성, 현종의 자질 부족, 숙종의 즉위가 필연적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종 즉위의 부당성, 현종의 자질 부족, 숙종 즉위의 불가피성의 측면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 1. 현종의 즉위는 정당한가?

가) 당시 사람들이 나무라기를, “선종은 사랑하는 아우가 5명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였으므로 이런 변란이 일어났다.”라고 하였다.<sup>8)</sup>

이 언급은 아마도 현종, 숙종의 교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기록일 것이다. 이것은 선종이 현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에 대해 당시의 부정적인 여론을 전하고 있다. 장성한 형제가 여럿 있음에도 어린 아들을 후계로 삼은 것을 놓고 선종을 비판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종, 숙종의 교체라는 사건의 원인을 선종이 제공하였다는 평가로도 읽힌다.

---

김광식, 1989, 「고려 숙종대의 왕권과 사원세력」, 『백산학보』 36 ; 김당택, 2001, 「文宗~仁宗朝 仁州李氏의 정치적 역할」,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 김창현, 2003, 「11세기 고려의 정치와 인주이씨」, 『인천학연구』 2-1 ; 김창현, 2016, 「고려왕실 외척의 등장과 왕위계승방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46 ; 南仁國, 1983, 「肅宗의 卽位過程과 王權強化」, 『歷史教育論集』 5 ; 남인국, 1993,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신편)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 박낙훈, 1987, 「고려 숙종의 즉위과정에 관한 연구」, 『고고역사학지』 3 ; 서성호, 1993, 「숙종대 정국의 추이와 정치세력」, 『역사와 현실』 9 ; 유영욱, 2018, 「고려숙종의 즉위과정에 대한 조선사가의 인식」, 『역사와 경계』 107 ; 임영희, 2019, 「고려 숙종의 즉위에 대한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6 ; 추만호, 1985, 「李資謙의 軍事基盤理解(上)」, 『史鄉』 2, 공주사범대 ; 현종민, 2023, 「고려 전기 왕의 즉위 정당성 확보와 폐위왕」, 『한국중세사연구』 74 ; 藤田亮策, 1934, 「李子淵と其の家系(下)」, 『靑丘學叢』 15.

8) 『高麗史節要』 卷6, 獻宗 元年(1095) 7月.

하지만 가)의 세평(世評)은 선종이 현종을 선택할 즈음 또는 현종이 즉위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세평의 시점은 1095년 7월로, 이자의가 잡혀 죽게 되었을 때이다. 곧 이자의의 난이 일어난 원인을 현종의 즉위에서 찾으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선종에게 물은 것이다.<sup>9)</sup> 이는 현종의 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하기 보다는 선종이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이자의의 난과 같은 변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여론으로 읽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현종의 즉위가 정말로 어린 아들 대신에 장성한 형제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원칙을 깬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종의 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곧 선종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은 위의 기사처럼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종의 즉위 자체나 국왕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고려에서 왕위의 형제 계승은 의외로 자주 나타난다. 당장 태조의 뒤를 이은 2대 혜종(惠宗), 3대 정종(定宗), 4대 광종(光宗)은 모두 형제였으며, 현종(顯宗)의 세 아들인 9대 덕종(德宗), 10대 정종(靖宗), 11대 문종(文宗)도 형제였다. 그리고 순종, 선종도 문종의 아들로, 형제 계승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렇게 보면 2대 혜종부터 13대 선종에 이르는 12명의 국왕 중 8명이 동복 또는 이복형제였으며, 장자로 아버지의 뒤를 이은 혜종, 덕종, 순종을 제외한 5명은 형제 계승으로 왕이 되었다. 부자 계승으로 왕이 된 경우는 혜종, 경종, 덕종, 순종의 네 경우에 불과하여, 마치 형제 계승이 왕위 계승의 우선 원칙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주 발생하였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아들로의 계승보다 장성한 형제로의 계승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태조가 남긴 유훈으로 정당화되었다. 곧 태조 왕건은 사망 직전에 남긴 훈요 중 세 번째에 “장자가 불초하면 차자에게 넘긴다.”라는 항목을<sup>10)</sup> 남겨 대통의 계승자가 ‘불초(不肖)’

9) 추만호, 1985, 앞 논문, 50쪽.

10)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26年(943) 4月.

하다면 다른 능력 있는 형제로의 계승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지침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여지를 준다.<sup>11)</sup>

이 때문에 선종의 경우에도 즉위 당시 11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이 아니라 1094년 기준으로 41세, 즉위할 때에는 42세인 계림공 자신이 형의 뒤를 잇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선종이 병상에 있을 때, 계림공이 문병을 간 의도나 광상이 계림공의 병문안을 막았던 행동이 선종의 후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이는 형제 계승의 가능성을 양측이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sup>12)</sup> 이미 형제 계승에 의한 사례가 자주 있다 보니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하였고, 그래서 계림공 스스로도 그러한 여론에 힘입어 스스로 왕위계승권을 내세울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sup>13)</sup> 그럼에도 이러한 여론은 현종을 즉위시킨 선종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인 것이지 현종의 즉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현종이라는 11세의 국왕이 등장한 결과, 고려에서는 태후에 의한 섭정이 출현하였다. 곧 현종의 어머니인 사숙태후에 의한 임조칭제(臨朝稱制)가 나타났다. 예종대에 선종 묘정의 배위(配位)를 1비인 정신현비와 2비인 사숙태후 중에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벌어졌다.

나-1) 예종 2년(1107) 4월에 왕이 정신현비를 선종묘에 부모(附廟)하려 하였다. 간관이 아뢰기를, “정신현비는 국원공의 비로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 다. 사숙태후는 국원공의 비빈으로 즉위하기까지 내조한 공이 크며, 태자가 왕위를 계승한 후에 임조칭제(臨朝稱制)한 것이 3년이고, 현종이 숙종에게 양위하자 이내 옛 궁으로 물러나 끝내 그 덕을 잃지 않았습니 다. 응당 사숙태후로 부모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sup>14)</sup>

11) 김선미, 2022, 『高麗前期 王位繼承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7쪽.

12) 광상은 숙종대에 대신까지 올랐는데, 본래 서리 출신으로 선종의 잠저시부터 총애를 받았다. 숙종이 계림공 시절에 광상을 불러 보고 서대를 내려주려 한 적도 있다. 선종이 위독할 때 옆에서 시병을 할 정도로 선종의 측근이었다. 숙종의 화폐주조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기도 하였다(『高麗史』 卷97, 列傳, 郭尙; 서성호, 1993, 「숙종대 정국의 추이와 정치세력」, 『역사와 현실』 9, 15~16쪽).

13) 임영희, 2019, 앞 논문, 77쪽.

예종이 선종의 배위(配位)에 정신현비를 올리려 하자 사숙태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간관이 제시한 것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밑줄 그은 사숙태후가 ‘임조칭제’라고 하는 국왕 대리를 사실상 3년 동안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1094년 5월에 즉위해 1095년 10월에 퇴위한 현종의 재위 기간 상 ‘3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종 재위 후반에 이미 사숙태후가 사실상 국정을 담당하였던 것까지 포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5)</sup> 무엇보다도 이 발언은 국왕의 앞에서 간관들이 태묘의 배위 문제를 논의하는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임조칭제’나 ‘3년’ 등의 표현은 당시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sup>16)</sup>

나-2) 왕이 어리고 병약하여 만기(萬機)를 처결하지 못하여 모후(母后)가 국사를 오로지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주저하였다.<sup>17)</sup>

나-3) 지난번에 어린 임금이 병세가 심하여 정사를 결단함이 밝지 못하고 모후가 섭정(攝政)하였더니, 미혹에 빠져 법도를 잃어 흉한 사람이 틈을 타서 난을 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sup>18)</sup>

나-2)는 1095년(현종 원년) 7월의 기록이고, 3)은 1096년(숙종 원년) 4월의 일로, 모두 현종대에 모후, 곧 사숙태후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로지 하다[專]’와 섭정(攝政)으로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숙태후가 전면에 나서 국사를 사실상 운영하였음을 분명하다. 이 표현이 나온 상황은 나-1)의 임조칭제라고 한 상황과 동일하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사숙태후의 정치 행위에 대한 표현 차이이다.

14)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思肅太后.

15) 이정란, 2011, 「고려 宣宗妃 思肅太后와 仁宗妃 恭睿太后」, 『韓國人物史研究』 16, 188~190쪽.

16) 이 기록은 『고려사』 후미전 뿐만 아니라 『高麗史節要』에서도 반복되므로, 판각상의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이정란, 2011, 앞 논문, 189쪽 주47).

17) 『高麗史節要』 卷6, 獻宗 元年(1095) 7月.

18) 『高麗史節要』 卷6, 肅宗 元年(1096) 4月.

나-1)에서는 태후가 정치에 나섰다는 사실을 담담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만, 나-2) 신료들이 판단을 주저하였다고 하거나 나-3) 미혹에 빠져 끝내는 난을 초래하였다는 등과 같이 태후의 정치로 인해 현종대의 정치 상황이 어지러워졌음을 인과 관계로 적고 있다. 이는 사숙태후가 어린 국왕을 대신하여 일종의 후견인이 되어 정치에 나선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은 현종이라는 나이 어린 국왕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정치적 상황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린, 바꿔 말해 선종에서 현종으로의 왕위 계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 현종이 즉위하면서 사숙태후의 국왕 대행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음을 부정적으로 평가 내림으로써 현종 즉위의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현종과 관련하여 생각할 지점이 하나 더 있다. 현종은 태자(太子)로 즉위하였는지, 아니면 원자(元子)로 즉위하였는지 하는 점이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두 사서의 즉위 기사에서는 원자임을 밝히면서 선종의 유언을 받아 현종이 즉위하였다거나<sup>19)</sup> 현종이 원자로서 즉위하였다고<sup>20)</sup> 적고 있을 뿐 그를 태자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다.

잘 알다시피 태자는 현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을 이와 그 지위를 일컫는 말로, 왕의 장자(長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자는 왕의 장자에 부여한 지위로, 차자 이후의 아들에게는 부르지는 않는 지칭이다. 그에 따라 장자의 경우에 원자, 태자의 순으로 책봉을 받게 되며, 국왕의 사후에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하게 된다. 고려는 이러한 개념에 맞추어 태자 관련 의례를 갖추고 있었다. 원자탄생하의(元子誕生賀儀), 왕태자칭명입부의(王太子稱名立府儀), 책왕태자의(冊王太子儀)가 그것이다.<sup>21)</sup> 원자탄생하

19) 『高麗史』 卷10, 世家10, 獻宗 總序.

20) 『高麗史節要』 卷6, 宣宗 11年(1094) 5月 壬寅(2).

21) 다만 이 세 의례는 책왕태자의, 왕태자칭명입부의, 원자탄생하의의 순으로 『高麗史』 禮志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도에 따른 것이지 진행 순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의는 장자가 탄생하였을 때 축하하는 의식으로, 국왕은 3일간 정사를 보지 않고 4일째에 문무백관으로부터 축하를 받았으며, 7일째에는 경령전에서 국왕이 직접 원자 탄생을 고하는 것 등으로 정해져 있다.<sup>22)</sup> 책왕태자의와 왕태자칭명입부의는 국왕이 경령전으로 나아가 고유(告由)하는 주고(奏告) 절차로 시작한다. 정전인 대관전에 국왕이 태자 임명의 명령을 내리는 공간을 마련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태자는 동궁에서 그 명령을 기다렸다가 받는다. 두 의례는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나 절차가 동일하나, 책봉의에서는 태자에게 부절과 인정을 내려주고 칭명입부의에서는 그것이 빠져있는 점이 다르다. 곧 칭명입부의는 칭명, 곧 이름을 내려주는 절차와 입부, 곧 동궁관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태자로서의 지위 확인과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동궁관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sup>23)</sup> 태자 책봉 의례의 거행보다 태자 관련 사무나 태자의 생황 편의를 보조하기 위해 태자부가 우선 필요하였으며, 태자에 대한 훈육도 중요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태자부를 통해 태자 지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였기에 칭명입부의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다. 대체로 태자의 탄생과 성장에 따라, 그리고 책왕태자의 준비를 위해 원자의, 칭명입부의, 책왕태자의 순으로 의례가 진행된다 하겠다.<sup>24)</sup>

현종, 숙종을 전후하여 부자 관계로 왕위 계승한 경우에 왕태자 책봉의 여부와 그 연령대를 보면, 대체로 7~11세 무렵에 왕태자 책봉이 이루어졌다.<sup>25)</sup> 22세에 왕태자가 된 예종이 있지만, 그는 숙종이 즉위한 결과에 따른 뒤늦은 책봉이어서 예외이다. 현종의 경우에 1084년(선종 원년)에 출생하고 원자가 되었다.<sup>26)</sup> 그리고 5세 때인 1088년(선종 5)에 육(昱)이

22) 다른 왕자나 공주의 경우에는 視朝가 중지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며, 경령전에서의 고유 절차도 없다.

23) 당장 숙종도 예종을 1098년(숙종 3)에 태자를 세우고(立太子) 태자부를 세우고 나서 1100년에 책봉하였다(冊王太子)(『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3年 3月 乙丑(16) 및 5年 正月 乙未(28) 참고).

24) 김철웅, 2011, 「고려시대의 태자 책봉과 책봉례」, 『역사와 경계』 80, 28~35쪽.

25) 임영희, 2019, 앞 논문, 74쪽.

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sup>27)</sup> 이어서 10세인 1093년(선종 10)에는 선종이 왕육에게 수춘궁에 거처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지중추원사 유석과 우간의대부 손관을 태자좌우첨사로 임명하여서<sup>28)</sup> 첨사부라는 동궁관의 임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종은 이미 칭명(稱名)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1093년에는 첨사부의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태자의 입부(立府) 절차도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육은 1093년부터 사실상 태자라고 해도 무방하겠다.<sup>29)</sup>

그렇다면 즉위 전의 현종을 숙종대에 '원자'라고 지칭하고 예종대인 1106년(예종 2)에 '태자'라고 한 것((나-1) 참고)은, 중요한 변화가 담긴 표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종이 태자라고 한다면, 그가 선종의 뒤를 이을 적법한 최우선 계승자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숙종 측은 불편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숙종 측의 입장에서 현종을 원자로 지칭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편리하였을 것이다. 이 입장은 숙종 자신을 고려의 14대 왕으로 지칭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다-1) 전조(前朝)의 숙종이 비로소 경적(經籍)을 간직하였습니다. 그 도서(圖書)의 글(文) 중 하나는, '고려국십사엽신사세어장서대송건중정국원년대요건통원년(高麗國十四葉辛巳歲御藏書大宋建中靖國元年大遼乾統元年)'이고, 다른

26)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元年(1084) 6月 乙未(27) 및 獻宗 總序.

27)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5年(1088) 11月 癸亥(21).

28)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10年(1093) 3月 戊寅(1).

29) 입부를 한 것이 확인되고 책봉의가 거행된 사례가 몇 없기는 하지만, 의례 준비 등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종도 현종에 대한 책왕태자의를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렇기에 선종이 계림공에게 정변을 일으킬 발미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책왕태자의를 의도적으로 거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임영희, 2019, 앞 논문, 74~75 쪽), 숙종 측이 태자 책봉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를 하였을 수 있다. 필자는 의도적인 책봉의례의 지연이나 은폐 가능성보다는 선종의 건강 문제 등으로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고려국어장서(高麗國御藏書)입니다.<sup>30)</sup>

이 기록은 조선 세조 연간인 1463년(세조 9)에 나온 양성지의 발언 중 일부이다. 궁궐에서의 서적을 보관,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건의하던 중 고려 숙종 때의 장서인을 언급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고려 숙종은 두 종류의 장서인을 사용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 인문(引文)의 '십사엽(十四葉)'이라는 구절이다. 14번째라는 뜻으로, 뒤이어 나오는 간지와 송, 거란의 연호를 통해 신사년=대중건부 원년=건통 원년=1103년, 곧 숙종 8년이라고 하는 장서인의 날인 시점과 날인의 주체가 숙종(肅宗)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숙종은 고려의 14대 왕이 아니라 15대 임금이다. 선대왕 중 누군가를 생략한 셈이다. 숙종이 태조로부터 이어지는 계보에서 스스로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현종이 유일하다. 현종이 '태자'였음을 부정하고 '원자'였으며, 나이 어린 국왕이 등장하여 모후의 청정이라는 비상한 국정 운영 방식이 등장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장서인의 인문은 숙종이 국왕으로서의 현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스스로를 선종에 뒤이은 14대 국왕임을 드러낸 것이다.<sup>31)</sup>

30) 『世祖實錄』 卷30, 世祖 9年(1463) 5月 戊午(30) ; 『訥齋集』 卷2, 奏議, 「請建弘文館 [癸未五月十一日 以行僉知中樞院事上].」

두 책은 기본적으로 자구까지 동일한데, 실록은 '구년', 『눌재집』은 '원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마도 元과 九의 字形이 유사하여 벌어진 오류로 이해된다.

31) 金庠基, 2006,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출판부(初刊 1961,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71쪽 ; 李丙燾, 1961, 『韓國史 - 中世編 -』, 震檀學會, 225쪽 주3) 및 396쪽. 특히 이병도는 이 장서인의 기록을 『訥齋集』으로 인용하고는 일본 도쿄의 圖書寮(궁내성 서릉부) 소장 『北宋板通典』 및 마에다[前田] 家の 소장의 『重光會史』에서 그 날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숙종이 중광전에 납시어 본문의 장서인을 서적에 날인하였다거나 날인한 서적을 열람하였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숙종이 중광전에서 서적을 열람한 일과 양성지가 언급하는 숙종대 장서인은 두 건의 별개 기록이다. 이를 하나의 사실처럼 기술한 것은 필자가 확인하기로

또 현종에 대한 묘호를 올리지 않고 시호만을 올렸다는 사실로도 숙종이 현종을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숙종에게 양위한 현종이 1097년에 사망하자 숙종은 그에게 회상(懷殤)이라는 시호를 올렸다.<sup>32)</sup> 이때 '상(殤)'이라는 시자(諡字)는 어려서 결혼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에게 내리는 글자로, 실제로 고려도 어려서 결혼하지 못하고 사망한 왕자나 공주에게 내려주곤 하였다.<sup>33)</sup> 또한 국왕이 사망하면 묘호를 태묘에 부묘(祔廟)하면서 올리는데,<sup>34)</sup> 숙종은 현종을 부묘하지도 않았으며, 부묘 여부에 관계없이 현종에게 묘호도 올리지 않았다. 곧 현종을 선대왕(先大王)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sup>35)</sup>

다-2) 선왕(宣王, 선종)이 승해(旻駕)를 하신 때부터, 그리고 폐주(廢主, 현종)가 요양을 하게 된 이후로 예전의 잘못을 뒤미처 반성하고 지난날의 뜻을 애써 닦아 볼 요량으로 마침내 빛을 감추고 자취를 숨긴 채 분기(憤氣)를 머금고 목소리를 삼키면서 임천(林泉)에 서식하고 산택(山澤)을 방황하였습니다.<sup>36)</sup>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이 숙종에게 올린 표문이다.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로, 순종, 선종, 숙종의 동모제(同母弟)이다. 그는 형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특별히 선종을 폄훼하거나 낮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그가 직접적으로 조카인 현종을 '폐주'라고 지칭하고 있다.<sup>37)</sup>

는 김상기가 최초였는데, 이후에 간혹 이를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32) 『高麗史節要』 卷6, 肅宗 2年(1097) 閏2日 甲辰.

33) 이정란, 2021, 「고려 전기 국왕 諡號制의 내용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82, 73~74쪽.

34) 『高麗史』 및 『高麗史節要』를 보면, 국왕의 사망 기사와 함께 능호, 묘호, 시호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술 방식이다. 그래서 능호나 묘호의 정확한 加上 시점을 알 수는 없다.

35) 金庠基, 2006, 앞 책, 171쪽 ; 李丙燾, 1961, 앞 책, 225쪽 주3) ; 현종민, 2023, 앞 논문, 139~140쪽.

36) 『大覺國師文集』 卷8, 表, 辭赴闕表二首(第二).

37) 의천은 숙종 초에 해인사에서 흥왕사 주지로 옮기고 1101년(숙종 6)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표문의 작성 시기는 숙종 초로 생각된다.

그가 현종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숙종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섰던 것이다.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부정당한 현종은, 예종이 즉위한 1105년 11월에 '현종'이라는 묘호를 올리고 시호를 공상(恭襄)으로 고치면서 국왕으로 다시 인정받게 되었다.<sup>38)</sup> 이때에도 '상(殤)'은 여전히 남아 있어 현종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현종이 이미 사망하였고 예종 자신도 왕위를 이은 상황이기에 왕위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sup>39)</sup>

요컨대 숙종은 전대 왕인 현종을 국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 따라 가와 같은 세평을 마치 현종의 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처럼 읽히거나, 그에 대한 불만, 또는 정국이 불안해지는 원인이었음을 보여주도록 배치하여 마치 당시의 중심 여론으로 여기도록 유도하였다. 그에 더해 어린 현종이 태자가 아닌 원자로 즉위하였다고 문제 삼고, 그로 인해 나타난 태후의 청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종이 어려서,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자, 현종에게 묘호는 올리지 않고 회상이라는 시호를 올려서 그를 국왕이 아닌 종실의 왕자 수준으로 대우하였다. 숙종 스스로는 고려의 14대 왕으로 자임하였다. 이처럼 숙종 때의 조정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sup>40)</sup>

38)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卽位年(1105) 11月.

39) 현종이라는 묘호를 올리면서도 '殤'이 시호에 남아 있는 것은, 예종과 신하들 사이의 긴장 관계에 따라 현종을 인정하려는 신하들의 요구를 예종이 받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숙종의 입장을 어느 정도 관철하려는 절충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현종민, 2023, 앞 논문, 143~144쪽).

40) 숙종대의 고려는 거란(요)에 숙종의 책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前王 현종의 명의로 표문을 계속 보내 숙종을 인정하고 책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현종의 사망을 표문이 아닌 거란(요)의 동경병마도부서로 牒을 보내 알렸다. 이는 고려가 거란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숙종을 인정받으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이미지, 2017, 「고려 숙종 책봉 문제와 여요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1, 147~166쪽).

## 2. 헌종은 왕의 자질을 지녔는가?

숙종 측은 헌종의 정통성을 부정하고자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헌종의 자질도 문제 삼고 있었다.

라-1) 헌종 공상대왕(獻宗 恭殤大王)의 이름은 육(昱)이고 선종의 원자로, 어머니는 사숙태후 이씨(李氏)이며, 선종 원년(1084) 6월 을미일에 태어났다.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웠고 9살에 글과 그림을 좋아하였으며, 무릇 보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선종) 11년(1094) 5월 임인일에 선종이 흥서하자 유언을 받들어 중광전에서 즉위하였다.<sup>41)</sup>

라-2) 왕은 나이가 어려서 자신을 기르고 반성하지(修省) 못하고, 다만 내의(內醫) 3~4명을 불러서 방서(方書)를 묻거나 혹은 글씨와 그림을 배웠다.<sup>42)</sup>

라-1)은 『고려사』에 실린 헌종의 총서로, 그에 대한 간략한 전기라 할 수 있다. 그의 인품과 학식 등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처럼 먼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다음으로 글과 그림을 좋아하고, 마지막으로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세 가지의 짧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라-2)에서는 어리고 자신을 갈고 닦지 못하며, 그저 글과 그림을 배우는데 애썼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기사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헌종이 수성(修省)에는 관심 없고 그림이나 방술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 부분이다. 일국을 다스릴 능력을 계발하는 대신 그림 같은 잡기에 관심을 쏟고 자신을 갈고 닦지도 못한다고 한다. 물론 헌종의 자질이 총명하다는 표현도 총서에 있다. 방술 등에 대한 관심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 것에 비해 똑똑하다는 평가는 총서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헌종이 11세로 즉위하여 14세에 사망하였음을 감안하면, 라-1)에 9세라고도 나오듯이 그는 10세 전후의 아이였다. 그러한 이에게 수성이라고 하는 성인에게도 어려운 엄격한 기준을 들이

41) 『高麗史』 卷10, 世家10, 獻宗 總序.

42) 『高麗史』 卷10, 世家10, 獻宗 元年(1095) 1月 戊戌(1).

덴 것은, 현종의 자질을 국왕으로서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sup>43)</sup>

라-3) 신이 들건대, 태갑(太甲)을 추방하여 은(殷)나라를 안정시켰고, 창읍(昌邑)을 폐출하여 한(漢)나라를 편안하게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행해진 두 시대의 일이 지금 삼한(三韓)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왕의 위엄이 비치는 곳마다 모두 기뻐하며 환호합니다.<sup>44)</sup>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이 형인 숙종에게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올린 표문의 일부이다. 이 표문이 1095년 10월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태갑과 창읍이 쫓겨났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태갑은 탕왕(湯王)의 손자로, 상(商)의 3대 왕이다. 그가 즉위 후에 포악하자 이윤이 그를 3년 만에 동궁(桐宮)으로 추방했고, 태갑은 이곳에서 3년간 반성한 후에 다시 왕위에 올랐다는 고사가 전한다. 창읍은 전한(前漢)의 9대 황제 창읍왕 유하(劉賀)를 말한다. 광광(霍光)의 추대로 소제(少帝)의 뒤를 이었으나, 광광은 그가 황음무도하다고 하여 옹립 27일만에 폐위시키고 선제(宣帝)를 새로 옹립하였다. 의천은 태갑과 창읍과 같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이가 등장한 사태가 고려에 벌어졌다고 하면서 천하를 안정시킨 이윤과 광광 같은 이라고 숙종을 칭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천은 현종의 국왕으로서의 자질을 부정하고 있다.

43) 한편으로 현종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도 후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현종의 죽음이 숙종 측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박낙훈, 1987, 앞 논문, 43·51쪽). 하지만 현종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언급은 사숙태후나 고려가 거란(요)에 보낸 여러 외교문서 등 곳곳에서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1095년 10월 9일에 윤관과 임의 편에 보낸 문서 중에 현종의 병명이 消渴, 즉 당뇨라고 적혀 있다(『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卽位年 10月 辛未(9)). 11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소아당뇨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때였기에 실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숙종이 현종을 무리하게 살해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생각한다.

44) 『大覺國師文集』卷8, 表, 賀肅王新卽位表.

1094년 5월에 즉위하여 1095년 10월 초에 퇴위하여 약 17개월의 짧은 재위 기간을 지닌 현종이지만, 그의 치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만한 편린이 남아 있기는 하다.

마-1) 원년(1095) 봄 정월 무술 초하루. 신년하례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 옆에 혜성이 나타났다.<sup>45)</sup>

마-2) 병오일. 태묘에서 제향을 지냈다. 왕이 상(喪) 중이면서도 원구(圓丘), 방택(方澤), 종묘(宗廟), 사직(社稷) 및 무릇 사전(祀典)에 실린 것으로 거행하지 않은 제사가 없었다.<sup>46)</sup>

마-3) 5월 병신일, 태후가 현화사에 가서 선종의 소상재(小祥齋)를 열었다.<sup>47)</sup>

마-1)은 1095년(현종 원년) 정월 초하루의 기사로, 국왕이 없는 상태에서 조하의가 열렸다고 한다. 신년 정월 초하루에 국왕은 대조회를 열어 신하들과 만나는 조하(朝賀)를 받는 원정조하의(元正朝賀儀)로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런데 국왕이 임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이때에는 방조하라는 방식으로 해당 의례가 진행된다.<sup>48)</sup>

고려시대 전체에서 방조하의 사례는 모두 85건을 찾을 수 있다.<sup>49)</sup> 현종은 1095년의 신년을 맞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조회가 열렸을 것이다. 하지만 현종은 여기에 임석하지 않으면서 이 해의 조하의는 방조하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점은, 천변(天變)이 함께 기록되어

45) 『高麗史』卷10, 世家10, 獻宗 元年(1095) 正月 戊戌(1).

46) 『高麗史』卷10, 世家10, 獻宗 元年(1095) 7月 丙午(13).

47) 『高麗史』卷10, 世家10, 獻宗 元年(1095) 5月 丙申(2).

48) 『高麗史』卷67, 志21 禮9 嘉禮 元正冬至節日朝賀儀.

이민기, 2019, 「고려시대 元正朝賀儀의 구성과 의미」, 『東方學志』 189, 70~71쪽 ; 이정란, 2019, 「고려 전기 상표 의례와 국왕 권위의 현현」, 『사림』 68, 85~86쪽.

49) 국사편찬위원회의 고려시대자료DB에서 「放朝賀」를 검색어로 하여 『고려사』를 검색한 결과는 모두 86건이다. 이 중 85건은 모두 正月에 열린 편린 기록이고, 한 건은 『고려사』 예지의 元正冬至節日朝賀儀에 실린 의례 구절이다. 그래서 편린, 곧 의례 시행이 확인되는 건수는 85건이다(<https://db.history.go.kr/goryeo/search/searchTotalResult.do> 접속: 2025년 4월 16일).

있기 때문이다. 85건의 방조하 기사 중 어떠한 형태로든 천변이 함께 거론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천변은 우주의 우연한 관측 현상을 목적에 그치지 않고 그 현상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서(祥瑞)가 되기도 하고, 재변(災變)이 되기도 한다.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이 천문 현상과 정치적 해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논리이다. 이 경우는 후자로 해석된다. 태양의 옆에 혜성이 나타난 이때의 천변은 『고려사』 천문지(天文志)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근신이나 제후가 난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라고 풀이하였다. 이자의의 난이나 계림공의 정변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천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지만, 천문지에 현상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세가(世家)에 방조하와 함께 기록한 것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어린 현종의 치세가 옳지 못하다거나 정치를 똑바로 하지 못해 하늘이 반응한 천견(天譴)이라는 평가를 담은 것이다.<sup>50)</sup>

다음으로 마-2)에서 현종은 태묘에 직접 나아가 친향을 올리기도 하였다. 7월에 태묘에 열리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제례를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지만, 정해진 국가의례라고 한 구절로 보아 분명 어떤 의례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 일을 놓고 상종의 국왕이 각종의 국가의례를 빠짐없이 거행하고 있다는 언급이 뒤이어 적혀 있다. 국왕이 정해진 국가의례를 열심히 챙긴다고 일견 칭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맥락은 상중에 있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애도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마-2)는 마-3)의 기록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1095년 5월에 사숙태후는 현화사에 행차하여 지아비 선종의 1주기인 소상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이 기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상주인 국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후가 직접 나섰다고 사숙태후의 청정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왕이 상주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50) 이희덕, 1983,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研究 - 高麗時代 天文·五行說과 孝思想을 中心으로 -』, 일조각, 74쪽. 이때의 천변을 그는 현종에 대한 천견이 아니라 이자의와 계림공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쪽으로 접근하든 간에 현종이 아들로써, 국왕으로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sup>51)</sup>

현종에 대해 수성을 하지 않고 그림이나 글씨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총평을 한 것은 국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한다. 똑똑한 자질이라는 현종의 면모는 최대한 감추고 건강 문제 및 그에 연관되어 국왕의 역할을 모후가 대신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강조하며, 이를 하늘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천변으로 응하고 있다고 하는 숙종 측의 속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 현종이 국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각종의 기사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종의 자질 부족은 태조 훈요에 나오는 ‘불초(不肖)’의 조건에 현종이 해당함을 강조하게 된다.<sup>52)</sup> 바꿔 말해 현종의 자질 부족을 지적해 숙종의 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 3. 숙종 즉위는 필연적인가?

이제까지 선종의 뒤를 이은 현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거나 국왕으로서의 부족한 자질을 강조하는 방향의 기록들을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숙종이 대통을 이어 즉위한 것은 정당하거나 필연적인 것이었을까? 숙종의 즉위가 정당하였다고 지지하는 기록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51) 필자는 마-2), 3)의 기록을 현종이 국왕 노릇을 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종이 어리기에 수많은 현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머니의 입조칭제 형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정해진 규정과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되는 의례는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례를 통해 국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었나 하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2) 현종민, 2023, 앞 논문, 136쪽.

바-1) 문종 8년(1054) 갑오년 7월 기축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자라서는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였으며, 성격이 굳세고 과단성이 있었다. 오경(五經)과 자서(子書), 사서(史書) 중에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문종이 그를 사랑하여 일찍부터 말하기를, “나중에 왕실을 부흥시킬[復興王室]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라고 하였다. (문종) 19년(1065) 2월에 계림후(鷄林侯)로 책봉되었고, 31년(1077) 3월에는 계림공(鷄林公)으로 진봉되었다.<sup>53)</sup>

바-2) 선종 9년(1092)에 어가를 호종하며 서경으로 가는데 자주색 구름이 막차 위를 두르니, 천기(天氣)를 보는 자가 왕이 될 상서(祥瑞)라고 하였다.<sup>54)</sup>

먼저 바-1)은 숙종 총서에 나오는 것으로, 문종이 어린 숙종을 보면서 감탄하고 장차 왕실을 부흥시킬 이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외척, 문벌이 점차 발흥하면서 왕권이 위축되는 상황을 예상하였다는 것으로도 읽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092년에 선종은 8월에 서경으로 행차하여 10월까지 머물렀다.<sup>55)</sup> 2)는 이 기간 중의 일로, 선종이 서경에 행차하는 데에 계림공이 호종하다가 자주색 구름을 만났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그 구름이 계림공의 막차 위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이 형상은 계림공이 왕이 될 상서로 예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092년 8월의 어느 날로 시점을 잡을 수 있다.

선종의 재위 후반부에 아직 왕위 계승 구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천변이기에 선종이 부답스러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56)</sup> 그런데 왕조사회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해석 방식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1092년(선종 9년)은 선종의 나이 44세로, 후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종이 1094년에 사망하고 11세의 현종이 즉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내린 편견이 아닐까. 즉 1092

53) 『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叢書.

54) 『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叢書.

55)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9年(1092) 8月 戊辰(17) 및 10月 丙子(27).

56) 현종민, 2023, 앞 논문, 134쪽.

년 시점에서 선종은 44세이며, 그에게는 큰아들 왕욱(뒤의 현종)을 비롯해 한산후 왕윤과 그 동생 등 아들이 셋이나 있는 상황이다.<sup>57)</sup> 선종의 뒤를 이을 계보가 불안하다고 할 여지는 적다. 되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인 숙종이 왕이 될 징조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위의 두 기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문종의 가계를 보면, 그는 인예순덕태후와의 사이에서 10명, 인덕왕후 사이에서 3명 등 모두 13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문종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손자는 셋째 아들 계림공이 낳은 왕우(뒤의 예종)가 유일하다. 순종은 자식이 없이 사망하였으며, 선종은 왕이 된 다음 해에 왕욱을 낳았다. 숙종만이 1079년(문종 33)에 후에 예종이 되는 아들 왕우를 낳은 것이다. 문종이 1083년에 65세로 사망하였음을 놓고 보면, 문종 자신에게는 모두 13명이라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정작 61세가 되어서야 첫 손자를 본 소위 손이 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왕우는 문종에게 매우 소중한 손자이고, 계림공은 더욱 예뻐 보이는 아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런 문종의 후사에 대한 배경을 놓고 다시 문종과 숙종 사이의 대화를 보면, '왕실의 부흥'이라는 것이 문벌과의 갈등 등으로 흔들리는 왕실을 바로잡을 상황을 염두에 둔 대화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문종의 발언이라고 발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sup>58)</sup> 만약 이렇게 해석

57) 1094年 10월에 숙종이 즉위하자 즉위 당일에 선종의 3비 원신궁주와 한산후 형제 등 3인은 경원군으로 유배되었다(『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卽位年(1095) 10月 庚午(8)). 이로 보아 선종과 원신궁주 사이에 두 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8) 만약 중첩된 혼인으로 인한 외척의 발흥과 그로 인한 왕실의 위축을 문종이 걱정한 것이라면 일종의 모순이 생긴다. 문종 자신이 인주이씨 이자연의 두 딸과 혼인하였으며, 순종, 선종을 인주이씨 이자연의 손녀와 혼인시켜서 인주이씨를 대를 이은 외척 가문으로 성장시킨 것은 문종 본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수의 외척을 매개로 일종의 문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왕 보위력을 높이려고 의도하였다고 견해(채웅석, 2014, 「고려중기 외척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8, 338~344쪽; 임영희, 2019, 앞 논문, 81~82쪽)에 따르면, 문벌과의 갈등에 따른 왕실의 부흥을 심중에 품은 맥락으로 문종의 발언을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할 여지가 있다면, 숙종에 대한 문종의 평가는 다시 보아야 한다. 곧 숙종이 즉위한 후에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려는 과정에서 문종의 발언을 강조하여 배치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즉위를 일찌감치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정치적인 선전의 하나로 교묘하게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2)의 계림공에게 왕기(王氣)가 있다는 상서(祥瑞)는 결과적으로 왕이 되었기에 상서일 뿐, 당시에 계림공이 도리어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징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징조에 대해 계림공이 아무런 처벌이나 혐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가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것으로 짐작되며,<sup>59)</sup> 이 역시 숙종의 즉위를 미리 예고하는 천변임을 드러내어 즉위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장치로 총서에 배치되지 않았나 한다.

현종의 즉위 이후 어린 나이로 인해 모후인 사숙태후에 의한 ‘임조칭제(臨朝稱制)’ 상황이 이어지자 왕권이 흔들리고 정국이 불안해지게 되었다. 계림공의 왕위 계승 욕심을 알고 있던 이자위는 자신이 소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병 세력을 키워 조카인 한산후 윤으로 현종의 뒤를 잇게 하려고 도모하였다. 이를 눈치 챈 계림공이 소태보, 왕국모 등을 설득하여 이자의 세력을 진압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자위의 난을 놓고 연구자들의 입장은 크게 이자위의 거사 계획이나 그 움직임을 긍정하는, 곧 이자위의 난이 일어났거나 기도하였다는 입장과<sup>60)</sup> 그렇지 않고 계림공 측의 정치적 쿠데타,<sup>61)</sup> 정치적 날조극,<sup>62)</sup> 숙종을 미화하려는 선전이라는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sup>63)</sup> 심지어 이자위는 선종의 유연을 받아 현종을 지키려고 하

59) 한편으로 선종의 서경 행차 기록에 紫雲과 같은 징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숙종 총서에만 남아 있다. 의도적으로 숙종을 부각시키려 한 의도가 아닌가 한다.

60) 南仁國, 1983, 앞 논문, 129쪽.

61) 李萬烈, 1980, 「高麗 慶源李氏 家門의 展開過程」, 『韓國學報』 21, 12쪽.

62) 추만호, 1985, 앞 논문, 36·38쪽.

63) 박낙훈(1987, 앞 논문, 36·43쪽)은 이자위의 모의나 숙종의 조작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종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정치적 음모에 따른 숙종 즉위로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다가 숙종에 의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sup>64)</sup> 이자의의 난의 실체나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왕위를 놓고 경쟁하던 두 세력이 선종대 후반에 갈등을 빚다가 계림공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이자의 세력을 숙청하고 즉위하였다는 사건의 개요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자의의 활동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그가 세력을 모으면서 '바깥에서 왕위를 노리는 세력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 돌아가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한 언급이다.<sup>65)</sup> 계림공이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것이 숙종 즉위 후에 계림공이 왕실을 흔드는 이자의 세력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 거사를 막아 왕실을 안정시켰다고 하는 서사로 꾸며졌을 것이다.

한편, 이자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자의 세력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모의와 관련이 없는, 억울한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 계유일, (왕이) 선정전에 나아가 정무를 보았는데, 해가 기울 때까지 하였다. 중서성에서 아뢰기를, “…… 이 때문에 주륙(誅戮)을 크게 벌여 그 무리들을 남기지 않았으나, 본래의 사정이 아닌 일도 있어 죄인 가운데는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기(怨氣)가 천지에 가득하여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없으려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천명(天命)에 응하시어 대통(大統)을 이어 만기(萬機)를 모두 바로잡으셨습니다. 어사대와 상서형부에 명령하시어 무릇 감옥에 있으나 시비(是非)가 결정되지 않아 의심스러운 자들을 빨리 결정하도록 재촉하여 원통하거나 과한 형벌이 없도록 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발한 것은 모두 무고하게 고발한 자에게 벌을 내리도록(反坐) 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하신다면, 인정(人情)이 모두 즐거워하고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sup>66)</sup>

64) 임영희, 2019, 앞 논문, 71·84~85·94쪽.

65) 『高麗史』 卷127, 列傳40, 叛逆 李資義.

66) 『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元年(1096) 4月 癸酉(12).

숙종의 사면이나 인종의 진술에서 이자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 억울한 사람들이 다수 섞여 있었음은 사실이었다고 보인다. 재앙이 생기는 원인으로 억울함을 들고 있으며, 숙종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곧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국왕이 허락하였다. 이자의 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이가 존재했음을 즉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의 조정이 인정한 것이다. 숙종은 1101년(숙종 6)에도 이자의의 난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감형을 하거나 개경으로의 귀환 조치를 연달아 내리기도 하였다.<sup>67)</sup> 이는 이자의의 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이자의가 난을 모의하여 일으켰다고 하기 보다는 계림공 측의 의도에 따라 정국을 급히 장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변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sup>68)</sup>

결국, 문종대 왕계의 계승이 예종 탄생으로 가능해지면서 문종이 숙종에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칭찬한 언급이 숙종의 즉위와 맞닿으면서 ‘부흥’의 의미가 변하였다. 이제 혈족이나 왕위 계승의 의미에서 왕실과 국가의 안정, 부흥이라는 공적의 정치적 의미로 변용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 4. 숙종의 즉위를 둘러싼 기록과 기억의 문제

마지막으로 기록과 기억에 대한 몇 마디 이야기하면서 숙종의 즉위에 대한 정당화의 방식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현종의 양위와 숙종의 즉위를 둘러싸고 언급한 몇 가지 기록들은 대부분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 이른바 관찬사서에 실린 것들이다. 『고려사』, 『고려사절요』가 고려시대 당대의 것이 아니라 조선전기, 특히 세종에서 문종에 이르는 시기에 편찬되어 간행되었다는 점은, 주지

67) 『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6年(1101) 2月 壬子(21) 및 乙卯(24).

68) 인종대에 김부식이 지은 속리산점찰회소에도 숙종의 즉위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이 많아 원한이 쌓였다는 구절이 있다. 이 또한 이자의의 난 당시의 정치적 여파가 컸음을 말해준다(『東文選』 卷110, 疏 俗離寺占察會疏(金富軾)).

의 사실이다. 이때 실록 같은 고려시대 자료가 그 편찬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쓰였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었음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sup>69)</sup>

고려실록의 경우에 『예종실록(睿宗實錄)』의 편찬을 놓고 그 방식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인 편찬 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국왕이 사망하면 그 직후는 아니고 수년 혹은 수십년 후에 사관(史館) 주도로 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0)</sup> 예컨대 『예종실록』은 인종대에,<sup>71)</sup> 『인종실록(仁宗實錄)』은 의종대에,<sup>72)</sup> 『의종실록(毅宗實錄)』은 명종대에<sup>73)</sup> 편찬이 되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

『헌종실록(獻宗實錄)』을 비롯해 그 전후의 『선종실록(宣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의 편찬 여부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선종실록』은 정목(鄭穆)이 한 권을 맡아 지었다고 한 기록으로<sup>74)</sup> 그 편찬 사실이 확인되나,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1105년(숙종 10)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숙종 재위 전반부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숙종실록』의 경우에도 이덕우가 그 편찬 과정에 참여하여 호부시랑으로 승진하였다고 하므로 『숙종실록』도 편찬되었던 사실은 알 수 있다. 이덕우의 관력으로 보건대 그 시기는 1110년(예종 5) 이후로 짐작된다.<sup>75)</sup>

아마 『헌종실록』도 편찬되었다고 짐작된다. 다음을 보자.

69) 『高麗史』纂修凡例; 노명호, 2019,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지식산업사.

70) 鄭求福, 1999, 「高麗朝 史館과 史官의 史論」, 『韓國中世史學史(1)』, 집문당, 125~133쪽.

71) 『高麗史』卷15, 世家15, 仁宗 卽位年(1122) 9月 乙亥(19).

72) 『高麗史』卷98, 列傳11, 金富軾.

73) 『高麗史』卷100, 列傳13, 崔世輔.

74) 김용선 편, 2012, 「鄭穆墓誌銘」, 『(제5판)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75) 『高麗史』卷15, 世家15, 仁宗 2年(1124) 3月 己巳(21).

이덕우는 1110(예종 5)에 증서사인(증4품)으로 재임 중인 것이 확인되어 侍郎(정4품)으로의 승진은 그 이후로 추정 가능하다.

아) 멀리서 삼한 23대의 실록을 맡으니 / 遙知三韓二十三代之實錄  
구름산 가운데서 날날이 뒤지리라 / 一一掀攬雲山中<sup>76)</sup>

이것은 충렬왕대에 직사관(直史館) 추적(秋適)이 실록을 포쇄하러 해인사로 가게 되자 흥간이 전송하면서 지은 시 중 일부이다. 인용한 시구에 “23대의 실록”이라는 표현이 있다. 고려의 23대 국왕은 고종이다. 태조에서 목종까지의 7명의 국왕에 대한 한 종의 실록인 『칠대실록(七代實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이미 23대에 걸친 실록이 편찬되어 있어야 한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은 충렬왕 때인 1277년에 편찬을 하도록 명령하였고, 1309년에도 충선왕이 『충헌왕실록(忠憲王實錄)』의 편찬을 명한 바 있다.<sup>77)</sup>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흥간이 1304년에 사망하였기에<sup>78)</sup> 그가 언급한 실록은 1277년 즈음에 만든 『고종실록』을 말한다. 어찌되었든 『고종실록』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 충렬왕대에 고려의 모든 역대 국왕별로 실록이 편찬되었다고 하겠다. 그럼 『현종실록』도 편찬되었어야 셈이 맞는다.<sup>79)</sup> 그렇다면 『현종실록』의 편찬은 예종대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숙종은 현종을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종은 현종이라는 묘호를 올려 국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고려의 실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은, 선종에서 숙종대에 걸친 『고려사』 등의 기록이 고려실록에 상당 부분 근거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우리가 보는 기록은 당시의 평가나 언급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록으로의 편찬은 당시의 공식 기록이다. 기록 내지 기록된 문서는 단순히 기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기억을 선별하고 정치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며, 기억의 통제와 규범화 등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기억이 권력과 결합하여 어떠한 ‘사실(史實)’을 형성하고 그 해석을 주도

76) 『東文選』 卷6, 七言古詩, 送秋玉蟾曬史海印寺(洪侃).

77)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 3年(1277) 5月 壬寅(14) 및 忠宣王 元年(1309) 2月 戊寅(24).

78) 『東人之文五七』 卷9, 洪僉舍侃二十首, 洪侃小傳.

79) 鄭求福, 1999, 앞 논문, 137~138쪽.

하거나 독점하기도 한다. 숙종, 예종대의 기록도 이러한 원론적인 의미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당시의 또 다른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선종에서 현종을 거쳐 숙종대에 활동한 관료들의 일부 기록이 남아 있다. 바로 묘지명(墓誌銘) 등의 금석문이다.

자-1) 돌아가신 아버지의 휘는 상우(尙佑)로, 두루 선종, 순종, 숙종, 예종의 4조를 섬기면서 재주와 명망이 당시의 추앙을 받았다.<sup>80)</sup>

이것은 김귀부 묘지명의 일부이다. 김귀부는 1089년(선종 6)에 출생하여 1146년(인종 24)에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하자 상주인 아들이 자신의 친구 시병부상서 삼사사 김영석에게 묘지를 부탁한 것으로, 1146년 3월에 명을 부탁하고는 4월에 장사를 지냈다. 따라서 묘지명은 약 한달 정도의 기간 내에 묘지와 명을 짓고 새기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므로 1146년 4월의 장사 이전에 완성되었다 하겠다.

김귀부의 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부친 김상우를 언급하고 있다. 그가 순종 때부터 예종 때까지 관직 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4조를 섬겼다’라고 하였다. 순종에서 예종까지는 현종을 포함해 5명의 국왕이 있었기에 사실 김상우는 현종의 재위 기간에도 관직을 이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종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 현종의 짧은 재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불과 3개월을 재위한 순종도 포함하고 있어 재위 기간 탓은 아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보면, 현종을 감춰야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의 기록을 다시 보면, 문종의 장자로 선종의 형인 순종이 선종보다 먼저 즉위하였음에도 선종의 뒤로 위치가 도치되어 있다. 김상우가 실제로는 선종, 현종, 숙종, 예종의 4조에 걸쳐서 혹은 순종부터의 5조에 걸쳐 활동하였고,<sup>81)</sup> 이 사실에 기초하여 묘지명의 원고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80) 「金龜符墓誌銘」.

어떤 이유로 헌종을 드러낼 수 없음에도 헌종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을 수 있다. 묘지명은 1146년 4월에 장사지내기 전에 제작이 완성되어야 하므로 만약 각자(刻字) 단계로 넘어갔다면 제한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헌종 자리에 순종을 넣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1146년이라는 인종대에도 헌종을 함부로 드러내기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보다 분명하게 헌종을 감추고 있는 것은 임의(任懿) 묘지명이다. 임의는 1041년(정종 7)에 출생하여 1117년(예종 12)에 사망하였고, 이 묘지명은 아들 임원애가 부탁해서 장사지낼 때에 명을 지었다고 한다. 다만 찬자는 결락으로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묘지명의 작성 시점이 1117년임을 알 수 있다. 역시나 묘지명을 지어 둘에 새기는 등의 제작 과정이 촉박하였다고 짐작된다.<sup>82)</sup> 그는 예종대에 윤관을 탄핵하는 데에 앞장선 이들 중 하나였으며, 윤관의 실각 이후에 권판상서이부사가 되어 수상이 되었다. 1110년(예종 5)에 수태위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상주국(守太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上柱國)로 치사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보다 그는 선종이 즉위하기 전 국원공부의 전침으로 있다가 즉위 후에는 선종의 내시로 발탁된 이후 대간, 문한관을 지낸 바 있어 선종의 근신으로 파악된다.<sup>83)</sup>

81) 김상우에 대한 여타의 기록이 없어 그의 출사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없다.

82) 임의에 대해서는 「임의묘지명」 외에도 『高麗史』 등이 참고된다. 또한 임의의 아들 임원에 대해 이르면, 2대에 걸쳐 수상이 되고 그 딸이 인종의 비 명의태후가 될 정도로 그 가문이 성장한다.

박용운, 1978, 「고려시대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 분석」, 『韓國史論叢』 3 ; 2003,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 朴漢男, 1984, 「高麗內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 - 高麗前期 東萊鄭氏家門을 中心으로 -」, 『首善論集』 8 ; 方喜垠, 2003, 「高麗 仁·毅宗代 定安任氏의 政治的 動向에 대한 研究 - 恭睿太后 任氏納妃를 中心으로 -」, 『역사학논총』 3·4.

83) 南仁國, 1983, 앞 논문 ; 서성호, 1993, 앞 논문, 19쪽 ; 채응석, 2021, 「부국강병을 향한 신법(新法)개혁: 숙종~예종 초의 개혁정책과 여진 정벌」, 『고려중기 정치사의 재조명』, 일조각, 105쪽.

그래서 임의의 묘지명 중 현종, 숙종대 무렵의 기록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조금 길지만 선종에서 숙종 초반에 이르는 부분을 인용해 보겠다.

자-2) ①태안 10년(선종 11년, 1094) 이부낭중 어사잡단 지제고(吏部郎中 御史雜端 知制誥)로서 중추원 우부승선(中樞院 右副承宣)이 되어 금자복(金紫服)을 하사받았다. ②숙종께서 즉위하시고 반란의 무리가 있어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어지러웠다. 조정에서는 모두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寒懼重足). 이때 공이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우승선(右承宣)이 되어 금증을 드나들었는데, 말과 얼굴빛이 침착하고 태연하였다. 사람들 중에 오래된 원한(宿憾)을 가지고 공을 무고하여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 숙종께서는 공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다른 마음이 없음을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무고하는 말을) 듣지 않으셨다. ③(숙종께서) 마침내 공에게 명령하여 왕위 계승의 일(嗣事)을 북요(北遼)에 알리도록 하였고, 공이 돌아오자 조산대부 형부시랑 충사관추찬(朝散大夫 刑部侍郎 充史館修撰)으로 임명하셨다.<sup>84)</sup>

위의 기록은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내용에 따라 ①선종대의 활동, ②숙종 즉위 이후에 임의가 겪은 모험, ③숙종대 거란(요)로의 사행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①은 선종대, ②와 ③은 숙종 즉위 이후의 일화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현종이 언급되지 않고 선종에서 숙종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묘지명에서 현종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런데 임의가 거란(요)으로 숙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사신으로 간 것은 숙종이 즉위한 다음날인 10월 9일의 일이다.<sup>85)</sup> 곧 거란으로의 사행 이전의 활동은 숙종이 즉위하기 이전인 현종대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②의 활동들은 사실 모두 현종대의 것인데, 마치 숙종대에 일어난 일인 양 기술되어 있다. 현종을 숙종으로 의도적으로 바꿔 적은 것이다.

84) 「任懿墓誌銘」.

85)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卽位年(1095) 10月 辛卯(9).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예종대라는 시점에 있지 않나 한다. 예종대에 『속종실록』의 편찬이 이루어졌기에 현종의 선위와 속종의 즉위라는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도 속종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미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을 것이다. 앞서 보았던 현종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나 속종에 대한 상서롭고 필연적인 기록들이 이 배경과 맥락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임의묘지명」 등은 예종대의 공식 기록이 실록 편찬 등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관료층 전반의 기억으로도 공유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한다. 비록 예종이 현종에게 묘호를 올리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속종의 정당화를 위한 기억을 그만두어야 할 이유는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속종이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다른 측면에서의 배경도 살필 수 있다. 곧 불교의 힘을 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자-3) 수창 원년 을해년 겨울 10월에 스님을 불러 법주(法主)로 삼아 『인왕경(仁王經)』을 강론하게 하셨으니, 등극하신 일을 하늘에 기도하기 위함이였다.<sup>86)</sup>

혜덕왕사 소현에 대한 비문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 보면, 수창 원년 을해년은 속종이 즉위한 1095년이다. 10월에 스님을 불렀다고 하는데, 속종은 10월 8일에 즉위하였으므로 소현의 강론은 즉위 이후가 되겠다. 『인왕경』은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논리를 설파하는 것으로, 『금광명경』과 함께 호국사상이 강하게 담긴 경전이다. 더구나 『인왕경』은 비구나 비구니를 통하지 않고도 왕의 위력으로도 불교를 흥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87)</sup> 속종이 『인왕경』을 강론하게 한 것은 표현 그대로 자신의 즉위를 부처에게 빌어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86) 「金堤金山寺慧德王師塔碑」.

87) 박용진, 2003, 「고려중기 인왕경신앙과 그 의의 - 의천과 『대각국사문집』을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14, 178~179쪽.

결국 숙종대 이후에 고려의 지배층은 순서의 조작, 과장 등의 방식을 통해 선종의 실책, 현종의 부당함과 무능력, 숙종 즉위의 불가피함을 적절하게 설파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었다. 곧 이자주의 난을 숙종이 진압하고 즉위하여 흔들리는 왕실을 부흥시켰다고 하는 ‘공식 기억’을 형성하고는 실록과 같은 공식 기록을 남기고, 당시 대신들의 묘지명 등 사적(私的) 기록에까지 그 기억을 ‘공유’하였다. 숙종의 왕위 찬탈이, 어리고 부족한 자질을 지닌 현종이 왕실이 위태롭게 되자 양위하여 왕실을 바로잡을 것으로 일찍부터 예견된 숙종이 난을 진압하고 즉위하는 일련의 서사가 만들어졌다.

## 맺음말

이 글은 숙종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종 즉위의 부당성, 현종의 자질 부족, 숙종 즉위의 불가피성의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현종에 대한 세평, 원자라는 부분의 강조, 어려서 즉위하여 발생한 어머니 사숙태후의 청정 등을 이용해 현종의 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현종에게 묘호를 올리지 않고 회상이라는 시호만을 올려서 그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숙종 스스로를 고려의 14대 왕으로 자임하였다. 또 현종에 대한 부정적 자질을 강조하여 태조 훈요에 나오는 ‘불초(不肖)’의 조건에 현종이 해당함을 은연 중에 드러내었다. 여기에 문종이 왕실을 부흥시킬 이로 숙종을 지적하였던 일화와 선종을 호종하던 숙종에게 자책 구름의 상서가 등장한 일화를 통해 숙종 즉위의 필연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선종, 현종대의 기록은 모두 숙종 또는 예종대에 편찬된 실록에 기초한 것으로, 그 방향은 숙종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미화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김귀부묘지명」, 「임의묘지명」 등에 현종이 감춰져 있어 당시 관료층 전반의 기억으로도 숙종대의 기록 방향이 공유 되었다고 이해하였다.

결국 숙종대 이후에 고려의 지배층은 순서의 조작, 과장 등의 방식을 통해 선종의 실책, 현종의 부당함과 무능력, 숙종 즉위의 불가피함을 적절하게 설파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숙종의 즉위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논문 투고일 : 2025. 07. 15 심사 완료일 : 2025. 08. 10 게재 확정일 : 2025. 08. 15

〈참고문헌〉

1. 원전

『高麗史』, 『高麗史節要』, 금석문·문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사료DB)

<https://db.history.go.kr/goryeo/>

『世祖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id/kg\\_a\\_10905030\\_001](https://sillok.history.go.kr/id/kg_a_10905030_001)

『東文選』(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1130\\_030\\_0110\\_2002\\_008\\_XML](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1130_030_0110_2002_008_XML)

[고려]義天, 『大覺國師文集』(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content/view?dataId=ABC\\_BJ\\_H0062\\_T\\_008&itemId=ABC\\_BJ](https://kabc.dongguk.edu/content/view?dataId=ABC_BJ_H0062_T_008&itemId=ABC_BJ)

[조선]梁誠之, 『訥齋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56A\\_0040\\_010\\_0070\\_2003\\_A009\\_XML](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56A_0040_010_0070_2003_A009_XML)

김용선 편, 2012, 『(제5판)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2. 저·역서

金庠基, 2006,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출판부(初刊은 1961, 『高麗時代史』)

노명호, 2019,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지식산업사

박용운, 2003,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李丙燾, 1961, 『韓國史 - 中世編 - 』, 震檀學會

3. 논문

김광식, 1989, 「고려 숙종대의 왕권과 사원세력」, 『백산학보』 36

김당택, 2001, 「文宗~仁宗朝 仁州李氏의 정치적 역할」,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김선미, 2022, 『高麗前期 王位繼承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창현, 2003, 「11세기 고려의 정치와 인주이씨」, 『인천학연구』 2-1

- 김창현, 2016, 「고려왕실 외척의 등장과 왕위계승방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46
- 김철웅, 2011, 「고려시대의 태자 책봉과 책봉례」, 『역사와 경계』 80
- 南仁國, 1983, 「肅宗의 卽位過程과 王權強化」, 『歷史教育論集』 5
- 남인국, 1993,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신편)한국사』 12
- 박낙훈, 1987, 「고려 숙종의 즉위과정에 관한 연구」, 『考古歷史學志』 3
- 박용운, 1978, 「고려시대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 분석」, 『韓國史論叢』 3
- 박용진, 2003, 「고려중기 인왕경신앙과 그 의의 - 의천과 『대각국사문집』을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14
- 朴漢男, 1984, 「高麗內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 - 高麗前期 東萊鄭氏家門을 中心으로 -」, 『首善論集』 8
- 方喜垠, 2003, 「高麗 仁·毅宗代 定安任氏의 政治的 動向에 대한 研究 - 恭睿太后 任氏納妃를 中心으로 -」, 『역사학논총』 3·4
- 서성호, 1993, 「숙종대 정국의 추이와 정치세력」, 『역사와 현실』 9
- 유영옥, 2018, 「고려 숙종의 즉위과정에 대한 조선사가의 인식」, 『역사와 경계』 107
- 李萬烈, 1980, 「高麗 慶源李氏 家門의 展開過程」, 『韓國學報』 21
- 이미지, 2017, 「고려 숙종 책봉 문제와 여요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1
- 이민기, 2019, 「고려시대 元正朝賀儀의 구성과 의미」, 『東方學志』 189
- 이정란, 2011, 「고려 宣宗妃 思肅太后와 仁宗妃 恭睿太后」, 『韓國人物史研究』 16
- 이정란, 2019, 「고려 전기 上表 儀禮와 국왕 권위의 顯現」, 『사림』 68
- 이정란, 2021, 「고려 전기 국왕 諡號制의 내용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82
- 임영희, 2019, 「고려 숙종의 즉위에 대한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6
- 鄭求福, 1999, 「高麗朝 史館과 史官의 史論」, 『韓國中世史學史(1)』
- 채용석, 2014, 「고려중기 외척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8
- 추만호, 1985, 「李資謙의 軍事基盤理解(上)」, 『史鄉』 2
- 현종민, 2023, 「고려 전기 왕의 즉위 정당성 확보와 폐위왕」, 『한국중세사연구』 74
- 藤田亮策, 1934, 「李子淵と其の家系(下)」, 『靑丘學叢』 15

Abstract

## The Historiographical Construction of Royal Legitimacy in the Goryeo dynasty: King Sukjong's Ascension

Kim, Bo-kwang\*

This analysis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efforts to legitimize King Sukjong's ascension to the Goryeo throne. This examination is structured around three core arguments: the illegitimacy of King Heonjong's enthronement, Heonjong's perceived lack of kingly qualities, and the inescapable necessity of Sukjong's own succession .

To legitimize King Sukjong's accession, the Goryeo ruling elite manipulated historical records. They exaggerated the flaws and incompetence of the preceding monarchs, Seonjong and Heonjong, to create a "speakable memory" that portrayed Sukjong's rise to power as an unavoidable necessity, thereby establishing the legitimacy of his new dynastic order.

Key words : King Sukjong, King Seonjong, King Heonjong, kingship, Yi Ja-ui's Rebellion, legitimacy
--

---

\* Associate Professor, Gachon Liberal Arts College, Gachon University